

스팽글리쉬(Spanglish)와 사이버스팽글리쉬 (Cyberspanglish)를 통해 살펴본 스페인어의 현재*

유 은 정
단독/한국외국어대학교

You, Eun-Jung(2007), El presente español a través del espanglish y ciberespanglish, *Revista Iberoamericana*, 18, pp. 125-152.

En este trabajo tratamos el desplazamiento lingüístico del español frente al inglés en los EE.UU, es decir, el espanglish, y el ciberespanglish, cuya expansión se está acelerando por el desarrollo tecnológico de la informática y la Internet. El espanglish es una manera de hablar de los hispanohablantes con palabras sustituidas por todo o parte del inglés y nace por la necesidad de comunicación, por lo cual varias formas se representan y se difunden sin reglas determinadas. Por eso intentamos clasificar el proceso de la transferencia lingüística en el ámbito léxico en dos clases, el préstamo y el calco. El préstamo indica la importación de lexema parcial o total. En este proceso las palabras se recogen del inglés y se españolizan adaptándose al sistema morfológico y fonológico del español. En el calco léxico se toma el significado del inglés y no se crea una nueva forma léxica porque este proceso es la adopción de un significado extranjero para una palabra ya existente del español a través de la semejanza fonética o semántica entre las palabras de dos lenguas. En estos procesos es necesario darse cuenta de que la transferencia lingüística puede motivar un conflicto lingüístico en el sistema del español.

Key Words: Espanglish/ Ciberespanglish/ Hispanos, 스팽글리쉬/ 사이버스팽글리쉬/ 히스패닉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6-551-A00181)

I. 서론

인간의 언어 본능은 생명을 지닌 인간에 의해 사용되고 이해되고 또한 전달되는 것이기에 언어 역시 생명력을 갖고 여러 단계를 거쳐 천천히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변화, 발전하며 전파되어 간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과거 스페인어가 생성되어 오늘날의 스페인어의 모습으로 사용되기까지 수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별히 약 8세기에 걸친 아랍의 지배로 인해 스페인어에는 약 7천여 개의 아랍어 어휘가 사용되고 있으며 완전하게 스페인어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어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새로운 대상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언어에 해당 어휘가 없는 경우에 그 대상을 지칭하는 다른 언어의 어휘를 받아들여 사용하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 사회에 속한 화자들은 의사소통이라는 필요성을 따르게 된다. 과거 이민족의 침략으로 야기되었던 언어의 변화와는 동일하지 않지만, 오늘날도 서로 다른 두 언어 집단이 접촉하고 서로 영향을 끼치면서 새로운 언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본고에서는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하는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로 인해 영어와 스페인어가 혼합되어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스페인글리쉬(Spanglish)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스페인글리쉬는 단순히 지나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용인구가 점차 확대되어 영어, 스페인어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미국의 제 3의 언어로 불리고 있다.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로 인해 미국 사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페인글리쉬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스페인글리쉬의 어휘들을 살펴보고,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상 스페인글리쉬는 완전한 언어로서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용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정해진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는 스페인글리쉬의 어휘들을 스페인어와 비교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스페인어와의 비교를 통해 스페인글리쉬의 다양한 사용 형태들 중에서 논란이 되는 유형을 생각해 보고, 현대 스페인어의 발전 과정과 연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미국 내 히스패닉

1.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

2000년 미국의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는 약 3,300만 명으로 전체 미국인구의 12%를 차지했다. 그리고 2005년경에는 흑인을 넘어 미국 내 최고 소수 인종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예상보다 더 빠른 2003년 히스패닉 인구는 3,900만 명으로 처음으로 3,660만 명의 흑인 인구를 누르고 미국 사회에서 최대 인구를 가진 소수계로 부상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6년의 인구조사에서는 히스패닉 인구가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지속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톨릭을 믿는 히스패닉에게는 이혼과 낙태가 허용되지 않고, 가족 중심적이며 많은 자녀를 갖는 그들의 특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연방 통계국이 제시한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이 되면 백인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의 53%로 줄어드는 반면 히스패닉의 인구는 9,500만 명으로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2100년경에는 1억 9000만 명에 이르러 미국 전체 인구 중 3분의 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 중, 젊은 층의 인구 비중이 노년층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¹⁾

미국 내 히스패닉 계는 중남미 출신들로 멕시코 인이 가장 많고 푸에르토리코, 쿠바 출신의 순이다.²⁾ 멕시코 인들은 주로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며 멕시코에 인접한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애리조나, 시카고 등에 거주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은 주로 뉴욕과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쿠바 출신들은 1백만 명 정도로 마이애미, 플로리다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히스패닉 인구는 주로 미국 남서부에 많이 거주하며,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주에 특히 많은 것

1) 미국 인구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5~14세는 21.6%, 15~24세 20.5%, 25~34세 18.4%, 35~44세 14.5%, 45~54세 8.9%, 55~64세 4.8%, 65세 이상은 4.9%가 히스패닉계로 젊은 층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나이는 24.5세로 조사되었다.

2) 200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멕시코인이 58.5%, 푸에르토리코인 9.6%, 쿠바인 3.5%, 도미니카인 2.2%이고, 그 뒤를 이어 엘살바도르인 1.9%, 과테말라인 1.1%, 에콰도르와 페루인이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Lipski, J., 2005)

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뿐만 아니라 플로리다 주, 뉴욕 주, 일리노이 주, 애리조나 주, 뉴저지 주, 뉴햄프셔 주, 조지아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 유타 주, 버지니아 주, 메릴랜드 주, 델라웨어 주 등 히스패닉 계는 미국 50개 주중 약 33개 주에 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미국의 남서부에 집중되어 있었던 히스패닉은 이제 미국의 중서부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히스패닉들은 경제적으로 보다 많은 기회를 얻기 위해 미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으며 이들의 확산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미국 내 스페인어

다른 소수 인종들과는 달리 히스패닉은 그들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미국 사회에서 그대로 지켜가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미국의 정치·사회·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 내 히스패닉은 영어만 사용하는 인구가 전체의 12%에 불과하며, 70% 이상이 가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히스패닉의 언어인 스페인어가 미국 내에서 영어에 못지않게 중요한 언어로 여겨지게 되었다. 실제로 히스패닉 인구가 미국 사회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스페인어로 구성하고, 전화나 안내 방송, 고객 서비스에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등 스페인어는 미국사회에서 중요한 언어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히스패닉의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는 이제 외국어 혹은 이민자들의 언어로 여겨지기보다는 영어와 함께 또 하나의 언어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각종 미디어들이 스페인어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신문과 잡지도 스페인어 판으로 발간하면서 히스패닉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각종 미디어 매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현대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체로 컴퓨터를 들 수 있겠다. 컴퓨터의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네티즌의 수도 증가하고 있는데, 스페인어는 인터넷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조사되었다.³⁾ 또한 레온대학의 José

3) 2007년 인터넷 사용 언어 순위 조사에서 스페인어는 영어, 중국어 다음으로 인터넷에서 가

Ramón Morala Rodríguez 교수는 인터넷에서 스페인어 사용자의 대다수가 미국에 거주하는 히스패닉이라고 밝혔다.⁴⁾ 인터넷의 사용은 과거에는 예상할 수 없는 언어의 전파와 확산을 가능케 하며 오늘날의 언어 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선거에서 스페인어를 통해 히스패닉의 표심을 얻고자하는 노력들이 나타나며, 앞으로는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표를 얻지 못하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이는 증가하는 히스패닉 인구만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⁵⁾ 미국 텍사스주의 엘 세니소(El Cenizo)시에서는 많은 히스패닉 인구 때문에 1999년 8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히스패닉 세력의 증가와 확대는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인 스페인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스페인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조사에서는 공식 언어인 영어에 이어 스페인어가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조사되었다.⁶⁾

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조사되어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일본어, 불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한국어가 순위에 올랐다.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m>)

- 4) 벨슨/네트레이팅의 2002년 6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내 히스패닉 네티즌의 급증은 다른 소수민족을 압도했다는 것이다. 소수민족이 3~6%의 증가율을 보일 때 히스패닉 네티즌은 13%의 증가율을 보였다.
- 5) 2006년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는 부상하는 히스패닉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히스패닉 출신의 정치인들-상원의원 3명, 23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하원의장에 민주당의 Nancy Pelosi가 당선되었다. 상원의원 3명중 2명, 23명의 국회의원 중 19명이 민주당 소속이었다. 미국 내 최대 소수계로 자리 잡은 히스패닉들은 자신들의 요구-이민법, 최저임금, 교육과 보건에 대한 권리, 시민권과 관련된 문제, 스페인어의 유지 등-를 반영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원했고, 민주당은 이러한 히스패닉의 요구와 뜻을 같이 하고 있으며 실제로 선거의 결과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공화당 출신인 1명의 상원의원과 4명의 국회의원은 지역적으로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선출되었으며, 이 지역은 쿠바 출신 히스패닉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들의 대다수가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어 역시 히스패닉의 힘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40년 내에 백인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히스패닉 인구는 이제 미국 전역에 거주하며 정치에 있어서도 그 힘을 보여주고 있다. (Lagier, J., 2006)
- 6) 미국 내에서 스페인어가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숙달된 스페인어 화자의 수는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히스패닉 인구의 세대가 이민 2, 3세대로 넘어가면서 후속세대에서는 스페인어보다는 영어를 선호하고, 점차 스페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별로도 차이를 나타내는데, 남서부 지역에서는 교육, 사회 체계에 스페인어가 큰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 화자라면 가정에서도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뉴욕에서는 푸에르토리코인들 사이에서 스페인어를

Ⅲ. 스펡글리쉬와 사이버스펙글리쉬

1. 스펡글리쉬와 사이버스펙글리쉬

스페인어와 영어가 서로 접촉하면서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언어 현상이 스펡글리쉬의 출현이다. 이는 영어를 스페인어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두 언어집단이 공존하는 미국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언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⁷⁾. 그리고 인터넷이나 컴퓨터의 기술적 용어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특별히 사이버스펙글리쉬(cyberspanglish)라고 부른다. 19세기 중엽 Guadalupe Hidalgo 조약 이후, 텍사스, 뉴멕시코, 아리조나, 콜로라도, 유타, 캘리포니아는 멕시코가 미국과의 전쟁에 실패하여 미국에 편입됨으로써 공식어인 영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어를 스페인어식 발음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던 것에서 스펡글리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⁸⁾ 따라서 상이한 두 언어집단이 서로 만나 나타나는 언어접촉의 현상은 일반적으로 두 언어집단의 접경지역에서 일어나므로, 처음에는 주로 멕시코 국경을 따라 주로 미국 남서부에서 사용되었던 스펡글리쉬는 히스패닉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확산되어 이제는 그 사용 범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있어서도 사실상 스펡글리쉬는 특별한 사회적 필요와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발전과정을 나타낸다.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영어를 통해 학교 교육을 받은 이중 언어 사용자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며 성장한 후에 미

계속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여 사회적 위치에도 도움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젊은 뉴요커들 사이에서 스페인어가 많이 확산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얻어가고 있다. (Lipski, J., 2005)

- 7) 미국 사회에서 영어가 지배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스페인어이다. 미국 내 18세에서 49세 사이의 히스패닉 성인 인구의 절반 정도가 자신의 가정에서나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스페인어를 지배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히스패닉 성인 인구의 3분의 1 가량은 제 1언어로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 3분의 2가량은 영어와 스페인어를 모두 사용하는 이중 언어 화자로 본다. 이들 이중 언어 화자들은 영어보다는 스페인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Davis, C. A., 2001)
- 8) Hernández-Chavez, E., Cohen, A. y Beltramo, A.(1975)

국으로 이주한 이중 언어 사용자, 또한 개개인의 스페인어와 영어, 두 언어의 사용능력에 따라서도 스펜글리쉬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⁹⁾ 지역별로도 사용되는 스펜글리쉬의 형태는 서로 동일하지 않으며, 이점은 스펜글리쉬가 하나의 완전한 언어가 될 수 없는 이유로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스펜글리쉬의 다양한 어휘들을 조사하고 이를 중심으로 스페인어와 비교하여 언어적 관점에서 그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스펜글리쉬는 우리가 학습하고 교육하고 있는 스페인어와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며, 새로운 언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스펜글리쉬는 하나의 언어로서 널리 퍼져 확산되고 있으며 미디어와 생활 속에 깊이 침투하여 언어 소통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¹⁰⁾ 스펜글리쉬에 대해서는 영어가 스페인어에 침투하여 스페인어에 해를 입히고 있는 것이라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스펜글리쉬는 미국 내 히스패닉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문화이며 삶의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스펜글리쉬는 영어와 스페인어를 그 자체로 서로 섞어서 사용하거나, 스페인어의 음성학적 특성을 받아들여 영어 어휘를 스페인어 식의 발음으로 읽는 경우 혹은 영어의 발음 규칙을 스페인어의 형태에 적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영어 표현의 의미를 받아들여 그대로 스페인어로 옮겨 표현하는 등 사용되는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스페인어를 영어와 그대로 혼합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hasta soon(곧 보자)’, ‘Tiempo is

9) Ardila(2002)는 스펜글리쉬의 하위유형을 미국에 거주한 정도에 따라 스페인어와 영어의 숙달도를 기준으로 두 타입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일찍 미국에 온 사람들로 완벽한 이중 언어 화자이지만 학교교육으로 인해 영어를 더 잘 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스페인어를 읽고 쓰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주로 영어와 스페인어를 한 문장에서 번갈아 사용하는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을 많이 사용한다. 두 번째 타입으로는 얼마간 미국에 거주한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로서 이들은 많은 영어 단어를 차용하는데, 정확하지 않게 차용된 어휘를 단순히 스페인어의 음운 규칙에 적용하여 사용함으로써 두 언어 모두 정확하지 않게 사용한다. 따라서 모국어와 영어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인 언어의 간섭(interference)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10) 로스앤젤레스 북쪽의 Bakersfield에서는 주민의 32.5%가 히스패닉이며, 가정에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사회활동을 할 때는 영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밖에서 특별히 전문적인 어휘를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 스펜글리쉬를 사용하여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은 스페인어인 ‘seguro’ 대신 ‘aseguranza’를 사용하며 이는 영어의 ‘insurance’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세탁소’는 스페인어인 ‘lavandería’ 대신 ‘washateria’를 사용하며, 오히려 스페인어를 사용하면 이해하지 못한다. (Fernández-Ulloa, T., 2004)

money(시간은 돈이다)', 'Bueno, bye(그래, 안녕)', 'Ok, gracias(좋아, 고마워)'와 같이 하나의 구문 내에서 영어의 어휘와 스페인어의 어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들로 이러한 예는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혹은 문장이나 구문 전체를 영어와 스페인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Need advice? Escribeme(내게 편지해)'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영어의 어휘를 영어의 발음 그대로 스페인어로 옮겨 'bildin(building)', 'broder(brother)'와 같이 사용하거나, 스페인어화 시켜서 'parquear(park)'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스펡글리쉬는 두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뉴욕,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14세에서 24세 사이의 히스패닉 인구의 75%가 스펡글리쉬를 사용한다고 한다. 영어 표현 "I call you back"을 스페인어로 차용하여 번역한 예로 "Te llamo para atrás"는 마이애미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스펡글리쉬 표현이다.

또한 점점 늘어나고 일반화되는 인터넷과 이메일 사용의 증가로 말미암아 일상 대화와 여러 글들에서, 그리고 방송 매체에서도 관련 어휘들은 광범위하게 무분별적으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e-maillea este mensaje(e-mail this message)', 'cliquea el mouse(click the mouse)'와 같은 사이버스펙글리쉬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는 영어의 'e-mail, click'을 스페인어 동사의 굴절 어미 형태인 '-ar'를 받아들여 'emaillear, clickear'로 바꾸어 변환시킨 예이다. 사이버스펙글리쉬 역시 다양한 형태로 스페인어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 영어의 'exit'를 그대로 받아들인 표현으로 'hacer un exit'를 사용하여, 의미상 영어의 'exit'에 해당하는 적절한 스페인어 어휘인 'salir' 대신 사용한다. 또 하나의 예로, 영어의 'print'를 스페인어의 해당 어휘인 'imprimir' 대신 'printear'로 사용한다. 물론,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적절한 기술적 용어가 스페인어 자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새로운 용어가 도입될 수 있으며, 이는 언어를 풍요롭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어를 스페인어화 하여 사용하고 그 사용이 확대되면서, 언급된 'printear'나 'hacer un exit'등의 어휘들이 일반화되고 오히려 이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어휘들은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될 경우 의도하는 의미로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emaillear', 'surfear', 'linquear', 'attachear'와 같은 단어들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를 스

페인어의 언어체계에 그대로 적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그 기원이 없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스페인어의 모습에 상당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이 비단 스페인어만의 문제는 아니며 현대 사회에서 한국어 역시 통신, 기술의 발전이 미치는 영향력 하에서 언어의 순수성을 지키는 논란에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스펜글리쉬와 사이버스펜글리쉬의 몇 가지 예를 통해 보았듯이 스페인어와 영어의 혼합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페인어와 영어의 두 언어에 대한 언어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어로 형성되어 많은 인구가 사용하고, 각종 광고와 미디어,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생활에도 깊이 침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단지 언어의 장난으로 그치지 않고 의사소통에 언어의 혼합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고, 특히 인구의 25%가 히스패닉인 뉴욕에서는 실제로 스�펜글리쉬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New York Times』는 이러한 스�펜글리쉬를 영어와 스페인어에 이어 뉴욕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언어로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스�펜글리쉬를 연구하는 Ilan Stavans교수는 스�펜글리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특정 사회 계층이나 인종, 나이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4천만 명 정도의 인구가 스�펜글리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사이버 공간에서 스�펜글리쉬의 사용과 전파는 하나의 유행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실제 스�펜글리쉬는 대화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면을 통해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스�펜글리쉬로 쓰여지는 잡지가 발간되고 책이 출판될 정도로 스�펜글리쉬는 미국 사회에 하나의 언어로 자리잡고 있다.¹¹⁾

2. 기존의 분석

스펜글리쉬의 유형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화자들의 사회적, 언어적 필요에

11) Ilan Stavans교수는 스�펜글리쉬 사전을 출판하였고 ‘Latina’와 같은 잡지 등이 있다. 1, 2, 3 세대로 이어지는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가 경제와 각종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면서 스�펜글리쉬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합법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Ilan Stavans교수에 따르면 스�펜글리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그 표현들이 굳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 정해진 규범이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영어와 스페인어, 서로 다른 두 언어가 서로 접촉하면서 스페인어는 영어로부터 많은 언어적 요소가 전이(transference)되고 있다. 이러한 언어적 영향은 주로 어휘에 있어 두드러지며, 점차 통사적인 부분에서도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언어접촉을 통해 어휘가 전이되어 이루어진 스페인어 어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몇 가지 스페인어 어휘들을 살펴보았듯이, 영어의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유사한 형태로 모방하기도 한다. 또한 어느 정도 원래의 형태를 변형하여 받아들인 어휘들도 나타난다. 다양한 측면에서 영어와 혼합된 스페인어 어휘와 표현을 분류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분류의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Lipski(2005)는 사용 환경에 따른 분류를 하여 영어에서의 차용(borrowing)이 스페인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영어의 속어 표현이 문자 그대로 스페인어로 통사적으로 복사되는 경우, 대화나 혹은 하나의 문장 내에서도 스페인어와 영어가 번갈아 개입하는 경우, 스페인어가 능숙하지 않은 화자(semi-speaker)에게서 발견되는 문법적 오류, 스페인어의 유용성 때문에 제 2외국어로 배운 미국인들의 스페인어, 코믹하게 혹은 경멸적으로 유사 스페인어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¹²⁾ 역시 사용 환경에 따른 분류로 Castro, R. X.(1996)는 형식적 스페인어와 비형식적 스페인어, 사이버스페인어의 세가지 유형을 제안한다. 화자가 영어, 스페인어, 스페인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사용하는 경우를 형식적 스페인어로 보았고, 비형식적 스페인어는 영어를

12) 영어에서의 차용이 스페인어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영어의 'lunch'를 'lonche'로 사용하여 스페인어의 'almuerzo 혹은 comida' 대신 사용하는 것이다. 스페인어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영어의 어휘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스페인어에 없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나 혹은 빠른 발화를 위해서 사용한다. 영어의 속어 표현이 문자 그대로 스페인어로 통사적으로 복사되는 경우로, 'el señor Greenberg está corriendo para mayor'처럼 영어의 '...is running for mayor'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대화나 혹은 하나의 문장 내에서도 스페인어와 영어가 번갈아 개입하는 경우는 코드 스위칭으로 불리며, 문장을 영어로 혹은 스페인어로 사용하다가 다른 언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현상이다. 코믹하게 혹은 경멸적으로 사용하는 유사 스페인어는 'junk spanish'라고 부르며, 스페인어 'no te preocupes' 대신 'no problema'를 사용하거나 '싼 물건'을 'el cheapo'로 표현하는 것이 그 예로 언급되는데, 이는 영어의 어휘를 그대로 스페인어의 언어체계에 적용시킨 표현을 백인들이 인종차별적 관점에서 부르는 용어이다.

이해하는 화자와 좀 더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어휘와 기술적 용어나 컴퓨터 관련 어휘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컴퓨터 관련 어휘들로 영어를 스페인어화 하여 사용하는 사이버스펜글리쉬로 분류된다. 그러나 스펜글리쉬의 사용은 정해진 규칙이 없으며 사용 환경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언급된 두 분류 유형은 사실상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라고 보기 어렵다. Lipski(2005)의 분류는 사용되는 환경과 언어적 특징, 사용하는 화자에 따른 차이점 등이 혼합되어 언어 전이의 과정과 스펜글리쉬의 언어적 특징을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스페인어로의 통합 여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Castro(1996)의 분류는 사용 환경을 기준으로 삼아 일관된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형식적인 스펜글리쉬와 비형식적인 스펜글리쉬를 구별하는 기준이 모호하며 비형식적 스펜글리쉬와 사이버스펜글리쉬의 차이를 정의하기도 힘든 분류로 본고의 논의와는 맞지 않는다.

언어적 측면에서 미국 내 스페인어의 언어 전이의 과정을 다룬 분석으로서 Ardila(2005), Otheguy(1993), Weinreich(1974)의 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Ardila는 언어의 접촉으로 나타난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의 전이 과정을 스펜글리쉬의 표면적 현상으로 분리하고 영어로부터 단어를 빌려오거나 영어와 유사한 형태나 의미를 지닌 스페인어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로서의 차용과 담화상에서 화자가 스페인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는 코드 스위칭과 코드믹싱(code mixing)으로 분석한다. Otheguy는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영어의 영향을 어휘적 전이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언어적 접촉으로 나타난 현상인가, 혹은 언어적 접촉과는 무관한 별도의 접촉의 형태 -Otheguy는 문화적 접촉으로 분석한다. 인가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언어 접촉으로 나타난 현상은 스페인어의 언어 체계에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 반면에 언어 접촉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닌 경우는 문화적 혹은 개념적 변형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얻게 되며 스페인어의 언어 체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언어 간섭과는 무관한 현상으로 분리하여 분석한다. 따라서 영어에서 어휘를 빌려옴으로써 스페인어의 어휘목록에 변화를 가져오는 차용과 스페인어의 어휘를 통해 영어의 의미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의미의 확대 (semantic extension)는 스페인어의 언어체계에 변화를 만드는 현상으로 보았

고, 차용번역(loan translations) 혹은 복사(calque)는 언어접촉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니며 스페인어에 어떠한 구조적 또는 기능적 변화를 야기하지 않는 현상으로 차용과 의미 확대와는 구별하여 분석하였다.¹³⁾ Weinreich(1974)는 의미확대와 차용 번역의 개념을 구별하여, 언어 접촉으로 인해 일어난 변화가 개별 어휘의 의미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의미의 확대로 보았고, 어휘의 비정상적인 조합을 차용번역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분류는 의미의 확대가 하나의 단어에 영향을 주는지, 혹은 구 단위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로 구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어와 그 조합으로의 분류는 의미확대와 복사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며, Otheguy는 단어의 조합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치 않다고 보았다. Ardila는 스펡글리쉬의 표면적 현상을 언어가 전이되어 사용되는 단위로 분석하였고, Otheguy는 언어가 전이되어 나타난 어휘들의 변화의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미국 내에서 서로의 언어 접촉의 과정을 통해 언어의 전이가 나타나는 과정을 중심으로 영어가 스페인어에 어떠한 측면에서 영향을 주었는지를 어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언어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차용과 복사, 의미확대 등의 개념을 전이의 과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스펡글리쉬 어휘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3) Otheguy(1993)의 분류에 따르면, 다음의 예문 (a)에서는 영어의 'know'가 'saber'동사로 대체되어, 'saber'동사가 'conocer'동사의 의미까지 포함하여 의미가 확대된 경우로 언어 간접 현상이다. 반면에 (b)는 영어의 'back'을 스페인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영어의 문화적, 개념적인 측면을 모델로 하여 재개념화한 것으로 영어의 영향으로 돌릴만한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지 않으며 스페인어의 언어 체계에 변화를 주지 않는 현상으로서 복사에 해당한다.

- a. Mami, ¿cómo ese niño sabe a Eric?
'Mami, how does that child know Eric?'
- b. Papi, tú me prestas esa pluma y yo te la doy para atrás; please, please, préstamela y yo te la doy para atrás.
'Daddy, you lend me that pen and I'll give it back to you, please, please, lend it to me and I'll give it back to you.'

IV. 스펜글리쉬의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스펜글리쉬 어휘를 조사하여, 그 분석의 틀을 언어가 전이되는 과정을 바탕으로 크게 차용과 복사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이를 실증적인 자료와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차용은 스페인어에는 없는 새로운 어휘를 영어에서 빌려온 것으로 스페인어에게는 신조어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이다. 반면에, 복사는 전이의 과정에서 스페인어에 존재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영어에서 의미 혹은 음성적 영향을 받아 이러한 특성을 기존의 스페인어 어휘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차용과 복사는 스페인어 어휘에 없었던 어휘인가, 있는 어휘를 이용하는가의 차이로 구별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일부 언어적 분석에서 전이된 모든 어휘들을 차용이라는 용어로 언급하여, 음성적 차용, 의미적 차용, 형태적 차용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휘를 차용할 때 그 어휘의 형태, 음성, 그리고 의미를 배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한 부분의 차용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어휘를 차용하여 스페인어와 혼합되는 과정에서 영어의 형태적 요소나 혹은 음성적 요소가 어느 한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남아있는 정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그 어휘의 형태의 차용이나 음성의 차용으로 분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의미는 없이 어휘의 형태만 차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의 차용은 어휘의 차용에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더불어 영어의 어휘는 차용하지 않고 의미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위해 차용과 복사의 개념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1. 차용

먼저 스페인어에는 없는 어휘를 빌려온 차용의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영어의 형태 그대로 차용하여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은 경우이다. 예를 들어, (1)과 같이 많은 영어 어휘들이 그대로 사용된다.¹⁴⁾

14) 차용은 한 언어가 다른 언어로부터 취하는 언어적 요소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원래의 어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와 모방하는 경우, 혹은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경우 등의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원래의 어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스페인어 문장

1) pin, delivery, bye, whisky, windsurfing, tips, light, tuning, show

두 번째로, 영어의 어휘가 차용되어 스페인어의 음운체계에 맞게 형태가 변화된 경우이다. 이는 두 언어 각각의 발음을 유지하는 경우와 스페인어 음운체계에 맞추어 영어의 형태를 변화시킨 경우로 나뉘어 진다. 먼저 발음을 중심으로 영어의 발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스페인어의 음운체계에 적용한 경우는 (2a)의 예들이 해당되며, 반대로 스페인어의 발음체계로 영어 어휘를 읽어서 표기하는 (2b)와 같은 경우가 있다.

- 2) a. bildin(‘building’), bisi(‘busy’), boila(‘boiler’), bos(‘boss’),
chopin(‘shopping’), dauntaun(‘downtown’), deiof(‘day off’),
jonrón (‘home run’), maus(‘mouse’), pari(‘party’)
b. averaje/averaxe(‘average’), broder(‘brother’), guaife(‘wife’),
imail(‘e-mail’)

다음은 영어의 어휘를 스페인어의 음운체계에 맞추어 스페인어의 형태소(morpheme)나 음소(phoneme)가 결합되는 경우이다. 영어의 자음으로 끝나는 어휘를 모음으로 끝나는 열린 음절¹⁵⁾을 선호하는 스페인어의 음운체계에 따라 스페인어의 모음 ‘-a, -o, -e’ 등의 음소를 결합하여 변화시키거나, -ería 등의 의미있는 형태소를 결합하여 스페인어화 시킨 경우와 스페인어의 동사 굴절어미 ‘-ar, -er, -ir’를 결합하거나 과거분사의 어미 ‘-ado’를 붙여 스페인

에 그대로 삽입되어 사용된다.

- a. Te hago charge en la tarjeta.
b. Mi mamá me hace cookies. (Lipski, J., 2004)
c. Tips para marketing.

이러한 차용의 예들은 스페인어의 언어 체계에 통합될 수 없는 경우로 Haugen, E.(1979)은 이를 순수차용(pure borrowing)이라고 부르고, Lázaro Carreter(1990)는 차용의 한 형태로서 외래어(loan word)로 분석한다. Zurita(2005)는 스페인어 체계에 합쳐져 스페인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통합된 차용(incorporated borrowing)이라 칭하고, 아직 스페인어 체계에 결합되지 못한 경우를 우발적 차용(sporadic borrowing)으로 구별한다. 본고에서는 스페인어에 없는 어휘들을 받아들인 스펅글리쉬 어휘들을 넓은 의미의 차용이라 부른다.

- 15)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을 열린 음절,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을 닫힌 음절이라 하며, 스페인어는 보통 열린 음절을 선호한다.

어 동사처럼 변형시킨 경우이다. 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예로 나타난다.¹⁶⁾

- 3) a. bloque('block', 'manzana, cuadra'), brecas ('brake', 'frenos'),
correctitud('correctness', 'corrección'), ganga('gang',
'pandilla'), gasetería('gas station', 'gasolinera'), glasso('glass',
'vaso'), grocería ('grocery', 'tiende de comestibles'),
lonche('lunch', 'comida'), maqueta('market', 'mercado'),
norsa('nurse', 'enfermera'), rufo('roof', 'tejado'), troca('truck',
'camión'), washatería ('laundry', 'lavandería'), yarda('yard',
'patio')
- b. cachar('catch', 'atrapar'), chopear('shop', 'ir de tiendas'),
chequear('check', 'verificar, comprobar'), cuquear('cook',
'cocinar'), frisar('freeze', 'congelar'), liquear('leak', 'gotear'),
lonchar/lonchea('lunch', 'comer'), parquear/parquiar/parkiar
('park', 'estacionar'), signear('sign', 'firmar'), taippear('type',
'escribir a máquina'), tuneado('tuned', 'puesto a punto')

세 번째로는 앞서 언급된 (3)과 같은 차용 현상과 유사한 경우로, 영어의 어휘가 스페인어의 음운 체계로 변형되는 과정에서, 스페인어에 유사한 형태를 갖는 동일한 의미의 어휘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의 어휘 형태를 스페인어화 시켜 스페인어에는 없는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차용이 일어난 경우이다.

- 4) bilingualismo('bilingualism', 'bilingüismo'), escortar('escort',
'escortar'), población('population', 'población')

다음은 사이버스펜글리쉬의 어휘들 중 스페인어에는 없는 어휘를 빌려온 차용의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로, 영어의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여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은 경우로서 기술적 용어나 컴퓨터 관련 용어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6) 어휘의 예는 스페인어(해당 영어 어휘, '해당 스페인어 어휘')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 5) software, hardware, hacker, P2P, web, online, bit, chips, ADSL, download, SMS, Word, Photoshop, plugin, Flash, phishing, backup, network, messenger, zoom

다음은 영어의 어휘를 스페인어의 음운체계에 맞추어 변화시킨 경우로서 (6a)는 영어의 어휘를 스페인어 발음체계에 맞추어 스페인어화 시킨 경우이고 (6b)는 스페인어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스페인어 어휘처럼 변화된 예이다.

- 6) a. módem(‘modem’), emoticon(‘emotición’), spam(‘spam’),
hácker/jáquer(‘hacker’), ícono(‘icon’)
b. accesar(‘access’, ‘acceder’), atachear(‘attach’, ‘adjuntar, unir’),
butear(‘boot’, ‘arrancar’), chatear(‘chat’, ‘charlar’), clikear/
cliquear(‘click’), daunlodear(‘download’, ‘descargar’),
deletear(‘delete’, ‘borrar’), dragear(‘drag’, ‘arrastrar’),
e-mailear(‘e-mail’, ‘enviar un correo electrónico’), escanear
(‘scan’, ‘rastrear, explorar’), forwardear (‘forward’, ‘reenviar’),
linicar/linquear(‘link’, ‘enlazar, ligar’), printear
(‘print’, ‘imprimir’), rebutear(‘reboot’, ‘reiniciar, reanudar’),
surfear(‘surf’, ‘navegar’), zipear(‘zip’, ‘comprimir’)

이와 같은 스펠링리쉬 어휘의 차용은 Ardila(2005)에 따르면, 특별히 어느 한 쪽의 문화에 있어 특별한 어휘일 경우, 즉, 스페인어에 해당 단어가 없거나 미국 문화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갖는 단어인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고유명사처럼 정확한 지시대상을 해당 언어만이 지닐 수 있는 경우와 스페인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더라도 정확한 의미는 아닌 경우에 차용으로 언어의 혼합이 이루어진다. 또한 언어를 보다 간결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화자들의 특성이 반영되어, 스페인어로 해당 어휘가 여러 개일 경우 영어를 선호하게 되고, 이렇게 차용된 단어는 스페인어의 음운 규칙과 화합하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의미에서 영어의 어휘가 음운적으로 더 단순한 경우에도 영어를 차용하게 된다. 영어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차용되고, 스페인어의 생활 용어는 영어를 차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영어의

어휘로 더 직접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경우는 대부분 차용되는데, 영어에서 기원한 기술적 용어들이나 학문적 용어들이 해당된다.¹⁷⁾

2. 복사

서로 다른 언어의 접촉으로 언어의 전이가 일어나는 또 하나의 과정으로서 복사는 기존 스페인어에 있는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스페인어에는 없는 어휘를 빌려온 차용의 경우와 차이가 있다. 복사는 영어의 의미를 빌려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용번역 혹은 단어 대 단어로의 번역(literal translation)등으로 불린다. 영어는 의미적으로 혹은 음성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러한 언어적 특성을 스페인어의 어휘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스페인어에 존재하는 어휘와 연관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에서 나타나는 음성적, 의미적 유사함으로부터 출발하여, 해당 영어 어휘의 의미를 스페인어 어휘가 갖게 되므로 두 언어 사이의 완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언어적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¹⁸⁾ 영어의 어휘가 지닌 의미를 복사할 때는 복사할 대상이 되는 스페인어와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유사함을 갖는 어휘를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의미가 일치하는 경우와 형태가 유사한 경우로 나누어 복사의 어휘들을 분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영어의 의미와 스페인어의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만 어휘의 형태는 전혀 다른 경우이다.

17) Ardila(2005)는 스페글리쉬의 표면적 현상으로서 차용과 코드 스위칭을 분류하였고, 그의 차용의 개념은 본 연구의 복사와 차용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영어의 어휘를 받아들여 스페인어에 혼합한 경우로서의 차용이 사용되는 경우들을 위와 같이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그리고 스페인어 원어민 화자들이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영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스페인어의 유창함은 감소하고 어휘의 부족을 경험하면서 문법 역시 점차 단순화되어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8) 사실상 서로 다른 사회에서 사용되는 두 언어가 그 어휘와 표현의 사용에 있어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어렵다. Culler(1976)는 단어 대 단어의 대체는 문제가 되는 방법으로서 한 언어에 있는 단어와 다른 언어에 자신과 완전하게 일치하는 단어는 없다고 보았다. 만약 언어끼리 완벽한 쌍을 이룬다면 화자가 더 적합한 의미를 만들려는 경향도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 7) abanico(‘fan’, ‘abanico, ventilador’), saber(‘know’, ‘saber, conocer’), equilibrio(‘balance’, ‘equilibrio, saldo’), cubrir(‘cover’, ‘informar’), grado(‘degree’, ‘grado, título’)

복사될 언어의 동의어를 선택하여 동일한 의미를 갖는 어휘로 복사되었고, 결과적으로 스페인어의 어휘는 본래 자신이 지니고 있는 의미 이외의 다른 의미를 얻게 되었다. 스페인어의 ‘abanico’는 ‘부채’의 의미만을 갖고 있지만 영어의 ‘fan’은 ‘부채, 선풍기’의 더 많은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의미의 복사를 통해 스페인어 ‘abanico’는 의미가 확대되었다. 스페인어의 ‘saber’는 ‘(어떠한 사실을) 알다’의 의미이지만, 영어의 ‘know’는 ‘(사람과 사실을) 알다’라는 의미로 스페인어의 ‘conocer’의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이다. 스페인어의 ‘equilibrio’는 ‘균형’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영어의 ‘balance’는 ‘균형, 저울, 잔고’의 더 많은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따라서 의미의 복사를 통해 스페인어 ‘equilibrio’는 의미가 확대되었다. 즉 영어 어휘가 지닌 대표 의미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로, 영어의 형태와 스페인어의 형태가 유사하여 영어의 의미가 해당 스페인어 어휘로 복사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영어와 스페인어 어휘의 형태가 유사하지만 의미는 상이하거나 형태와 의미가 모두 유사한 어휘로 나눌 수 있다. 각각 다음과 같은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

- 8) a. actual(‘actual’, ‘real, efectivo’), aplicación(‘application’, ‘solicitud’), argumento(‘argument’, ‘discusión’), asumir(‘assume’, ‘suponer’), balón(‘balloon’, ‘globo’), carpeta(‘carpet’, ‘alfombra’), confrontación(‘confrontation’, ‘enfrentamiento’), consistente(‘consistent’, ‘coherente, compatible’), deliberar(‘deliver’, ‘repartir’), diversión(‘diversion’, ‘desviación’), embarazada(‘embarrassed’, ‘avergonzado/a’), eventualmente(‘eventually’, ‘finalmente, tarde o temprano’), facilidades(‘facilities’, ‘instalaciones’), factoría(‘factory’, ‘fábrica’), idioma(‘idiom’, ‘modismo’, ‘locución’),

- librería('library', 'biblioteca'), locación/localización('location', 'ubicación'), ministro('minister', 'ministro, pastor, clérigo'), pan('pan', 'cacerola, cazuela'), rango('range', 'campo, dominio'), salado('salad', 'ensalada'), sin('sin', 'pecado'), suceso('success', 'éxito'), vacunar('vacuum', 'aspirar')
- a'. entrar('enter', 'introducir, poner'), fuente('font', 'tipo (de letra)'), fila('file', 'archivo, fichero'), salvar('save', 'guardar')
- b. audiencia('audience', 'público, auditorio'), comando ('command', 'mandato, orden'), emergencia('emergency', 'urgencia'), honesto ('honest', 'honrado'), opcional('optional', 'optativo'), quitar('quit', 'abandonar, dejar'), remover ('remove', 'borrar, quitar'), requerimientos('requirements', 'requisitos'), seminario('seminar', 'cursillo')

(8a)와 (8a')는 영어와 형태적으로 유사하지만 의미는 다른 스페인어 어휘를 선택하여 영어 어휘의 의미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이며, (8a')는 사이버스펅글리쉬의 어휘에서 나타나는 의미 복사의 어휘들이다. (8b)는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두 언어의 어휘가 유사하여 영어의 의미로 복사된 경우이다. 그러나 (8a)와 (8b) 모두 어휘의 정확한 대응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두 언어의 접촉 과정에서 의미가 동일하고 형태가 유사한 어휘들은 서로 같은 어원을 갖는 어휘들로 동족어(cognates)가 된다. 사실상 영어와 스페인어 사이에는 많은 동족어들이 존재한다.¹⁹⁾ 반면에 형태가 유사하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거나 완전한 일치를 보이지 않는 어휘들은 가짜 동족어(false cognates)라고 한다.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로 유사한 음운적 특성을 갖는 경우 많은 영어 어휘들이 의미와 관계없이 스페인어로 복사되고 있으며, 또한 의미가 유사한 경우에는 영어와 가까운 가짜 동족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⁰⁾

19) 영어와 스페인어간의 동족어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hospital, error, industrial, natural, panorama, radio, general, idea, social, cruel, factor, hotel, crisis, animal, plaza 등은 형태가 완전하게 동일한 동족어들이다. 형태가 유사한 동족어들은 humano, figura, universidad, comunicación, importante, energía, pasar, inteligente, literatura, mapa, vitaminas, educación, diálogo 등으로 영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으며 형태가 유사한 예들이다.

20) 특별히 의미상으로 전혀 무관한 어휘들이 형태상의 유사성만으로 번역되는 가짜 동족어는

마지막으로, 영어 어휘의 의미를 복사하여 스페인어로 새로운 구(phrase)를 만들어내는 경우로, 앞서 언급된 두 가지의 의미 복사 과정과 동일하지만 영어의 어휘 혹은 구를 복사하여 그 결과로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낸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 9) a. reunión en la cumbre('meeting at the summit', 'reunión de la cumbre'), correr por mayor('run for mayor', 'competir para el alcalde'), fuera de servicio('out of service', 'no funciona, estropeado')
- b. desórdenes mentales('mental disorders', 'trastornos mentales'), tiempo real('real time', 'directo, al momento')
- c. Te llamaré para atrás('I'll call you back', 'Te vuelvo a llamar') Día de dar gracias('Thanksgiving day', 'Día de acción de gracias') Máquina de contestar('Answering machine', 'Contestador automático')

(9a)는 문자 그대로 번역하여 영어의 표현과 동일한 어순으로 어휘의 의미를 복사하는 경우이고, (9b)는 어휘의 의미를 복사하지만 스페인어의 문법 체계에 따라 영어와는 다른 스페인어의 어순을 적용하여 새롭게 조합한 경우이다. 그리고 (9c)와 같이 영어의 어휘를 복사하여 스페인어 문법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²¹⁾

스페인어와 영어가 혼합되는 언어의 접촉에서 나타난 언어의 전이의 과정으로 차용과 복사의 개념을 통해 다양한 스펡글리쉬의 어휘들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언어가 전이된 스펡글리쉬의 어휘와 표현들을 그 사

기존의 스페인어 어휘와의 충돌로 스페인어의 언어 체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IV. 3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 21) 영어의 'back'을 스페인어의 'para atrás'로 번역한 것을 단어 대 단어의 번역으로 인한 오류로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적 관점에서 볼때, 'para atrás'는 구조적으로 영어와는 달리 스페인어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치사+부사의 구조를 통해 'back'을 새롭게 표현한 미국 내 스페인어로 본다. 스페인어의 전치사 'para'가 지니고 있는 공간적, 시간적 개념을 바탕으로 미래의 행위로서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를 재창출한 것이다. 따라서 Lipski(1985)는 이를 통사적 복사, Otheguy(1993)등은 이를 영어를 문화적, 개념적 측면에서 모델로 하여 새롭게 창조된 표현이라고 보며, 언어적 접촉을 통해 언어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영어를 복사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용 단위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어휘의 차원에서 다루어진 차용과 문장 혹은 담화의 단위에서 사용되는 코드 스위칭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코드 스위칭은 화자가 대화를 진행하면서 두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어휘, 구, 혹은 문장을 두 언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것이다.²²⁾

3. 어휘 전이의 과정에서의 문제점

언어 접촉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전이가 차용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1)과 같이 영어의 철자 그대로 차용된 경우는 그 어원을 파악할 수 있지만, (2-4)와 같이 차용된 어휘들이 스페인어화 되어 스페인어의 음운체계에 맞는 형태로 변화되면 점차 그 어원이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영어가 공식어로 사용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은 모국어로 스페인어를 유지하면서 학교나 사회에서는 영어를 공식어로 사용해야 한다. 언어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영어를 사용할 때 스페인어 발음으로 읽기도 하고 자신들의 음성체계에 맞추어 변형된 형태로 편하게 발음하고자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히 형태적으로나 음성적으로 많은 유사함을 지니고 있는 영어와 스페인어의 경우에, 영어 어휘를 스페인어의 음운체계를 따라 유사하게 변화시켜 무분별하게 혼합할 때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빈도가 커지게 된다. 즉, 어휘의 차용 결과가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스페인어 어휘와 충돌할 수 있다. 만약 완벽한 이중 언어 화자가 아닌 경우로서, 스페인어 능력이 떨어진다면 더더욱 그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언어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²³⁾ 언어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난 차용의 문

22) Ardila(2005)는 화자가 어떤 시점에서 언어를 바꾸어 말하고 계속 그 언어로 말하는 것은 코드 스위칭이라 하고, (1)과 같이 사용된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에서 두 언어를 섞어 사용하는 것은 코드 믹싱으로 분석하며, (2)와 같이 사용된다.

(1) Yo no estoy de acuerdo de eso. But, anyhow, I think I will try again to get it.

(2) a. ¿Piensas que mañana we could go to the beach after returning from la casa de mi abuelita?

b. Por favor, please.

c. Es for you.

23) 히스패닉 이민 1세대는 자신의 모국어 언어능력이 영어의 그것보다 우수하지만, 이민 2세대나 어린 나이에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경우는 완벽한 이중 언어 화자이거나 상대적으

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예들이 지적될 수 있다.

- 10) a. troca('truck', 'camión'), brecas('brake', 'frenos'),
 factoria('factory', 'fábrica'), marqueta('market', 'mercado'),
 ganga('gang', 'pandilla'), rufo('roof', 'tejado'), achar('catch',
 'atrapar'), chatear('chat', 'charlar'), frisar('freeze', 'congelar'),
 deliberar('deliver', 'repartir'), vacunar('vacuum', 'aspirar')
 b. bilingualismo('bilingualism', 'bilingüismo'), escortar('escort',
 'escortar'), población('population', 'población')

(10a)의 예들 중에는 이미 스페인어의 어휘로 존재하고 있었던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스페인어로서의 원래 의미는 'breca'(황어), 'factoria'(대리점), 'marqueta'(밀랍덩어리), 'ganga'(싼 물건), 'rufo'(매우 만족한), 'cachar'(팽다), 'frisar'(오므라들게 하다), 'deliberar'(심사숙고하다)와 같이 복사된 어휘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이는 차용된 어휘를 스페인어에 병합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스페인어의 음운체계에 적용시키면서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게 된 예들이다.²⁴⁾ 또한 스페인어에 실제로 형태가 동일한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유사한 다른 어휘가 스페인어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차용된 어휘와 서로 어원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그 파생 형태로서 차용된 어휘를 이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트럭'의 의미를 복사한 'troca'는 동사 'trocar'(바꾸다)와 '채팅하다'는 의미를 복사한 'chatear'는 'chato(술잔)'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10b)와 같은 경우는 영어가 스페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로 볼 수 있으며,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영어와 스페인어가 접촉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스페인어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증가하는 차용의 어휘들과 함께 그 오류 또한 늘어날 것이다. 만일 영어

로 영어가 더 우수하고 스페인어의 능력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4) 이러한 예들은 기존의 스페인어 어휘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전혀 다르지만 형태가 유사한 복사의 예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이 경우는 사용하는 화자들의 스페인어 능력에 따라 스페인어 어휘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모르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형태가 유사하여 스페인어 어휘를 빌려 사용한 것일 수도 있다.

의 ‘exit’를 스페인어의 음운 체계에 적용하여 차용한다면, 그 결과가 ‘éxito’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영어의 어휘의 의미를 스페인어의 어휘나 표현으로 복사하는 과정에서 스페인어의 어휘는 의미가 확대되고 이러한 어휘들로 새로운 표현을 생성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택되는 스페인어 어휘는 주로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어휘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7)의 경우와 같이 복사될 언어의 동의어를 통해 의미의 복사가 이루어졌지만, 두 언어의 어휘 사용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스페인어 어휘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로 확대되면서, 영어 어휘가 지닌 다양한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완전한 어휘의 일치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영어 어휘의 의미가 복사되어 의미가 확대된 유형들 중에서 (8)에서 제시된 가짜 동족어의 경우는, 언어의 접촉으로 나타나는 유형 중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갖는 유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 현상은 두 언어의 해당하는 어휘의 형태가 유사하여 단어 대 단어의 번역으로 무조건 복사되는 과정에서 의미가 전혀 다르거나 완전한 일치를 보이지 않는 어휘들을 사용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영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서로 유사한 음운적 특성을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스페인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동일한 의미인지를 고려하여 더욱 조심스럽게 번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복사하고, 특히 의미가 유사한 경우에는 영어와 가까운 가짜 동족어를 더 선호한다는 점은 스페인어의 언어 체계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가짜 동족어로 나타나는 현상은 비단 미국 내 스페인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스페인어 학습자들은 거의 대다수가 영어를 먼저 학습하였고, 스페인어를 제 2외국어로 학습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영어와 유사한 어휘들을 접하게 되고, 따라서 스페인어를 사용할 때 영어와의 형태적 유사성에 의존하여 번역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따라서 영어를 이미 알고 있는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도 복사의 유형들은 언어의 사용에서 유의해야 할 측면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통신과 기술의 발전으로 영어의 영향력이 커져감에 따라 영어로부터 받아들여진 많은 신조어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스페인어화 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이버스팽글리쉬로서 제시된 ‘deletear, butear, lincar, surfear’ 등과 같은 어휘들은 스��팅글리쉬의 사용에 있어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는 표현들로서, 과연 이러한 어휘들이 의미적으로 상응하는 스페인어 표현으로 대체되었을 때 그 이해에 문제를 야기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부정적이다. 따라서 새로운 어휘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새로운 문화와 기술의 도입으로 스페인어에 그와 동일한 의미로 대체할 수 있는 어휘가 없어서 의사소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두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다른 언어와의 접촉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미국 내 스페인어의 경우는 올바른 스페인어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현재의 스페인어가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미국 내 히스패닉 인구의 증가로 두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생겨난 영어와 스페인어가 혼합된 형태로서의 스��팅글리쉬와 기술의 발전으로 일상으로 도입된 사이버스팽글리쉬의 표현들을 형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언어의 접촉으로 생겨난 다양한 형태의 스��팅글리쉬를 언어적 측면에 기준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언어가 전이되는 과정을 차용과 복사로 분류하였다. 차용은 스페인어에는 없는 새로운 형태의 어휘를 영어에서 빌려 사용하는 현상이며, 복사는 전이의 과정에서 스페인어에 존재하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으로 영어에서 의미 혹은 음성적 영향을 받아 이러한 특성을 기존의 스페인어 어휘에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스��팅글리쉬의 형태별 분류를 통해 언어 전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차용에서는 영어의 어휘를 스페인어의 음성, 음운체계에 맞추어 새로운 어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의 스페인어 능력 정도에 따라 스페인어에 이미 존재하는 어휘와 동일한 형태를 새로운 의미를 갖는 단어로

생성하거나, 스페인어에 동일한 의미를 갖는 상응하는 어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스페인어화 할 수 있는 형태소를 영어 어휘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스페인어의 언어체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복사에서는 스페인어와 형태적 혹은 의미적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가짜 동족어로 번역되는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두 언어가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미국 내 스페인어의 사용 환경 속에서 다양한 원인들- 언어 사용자의 스페인어 능력이 낮다거나, 의사소통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혹은 문화적 우월성을 따르고자 하는 의식-로부터 발생하고 또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어휘를 자신의 언어로 받아들이거나 번역하는 과정은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스페인어를 제 2외국어로 교육하고 학습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서경석(2002), “스팽글리쉬, 미국 스페인어의 확장파 변형에 대하여”, 『서어서문연구』, 22, 79-101.
- 이재학(1999), “언어의 보존과 상실-미국내 스페인어의 현주소”, 『서어서문연구』, 15, 193-211.
- 최종호(2002), “미국 남서부지역 스페인어의 현재와 미래”, 『서어서문연구』, 25, 53-69.
- Alvarez, Ángel(2000), “Basic Computer Spanglish Pitfalls”, <http://maja.dit.upm.es/~aalvarez/pitfalls/>
- Ardila, Alfredo(2002), “Spanish-English bilingualism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F. Fabbro (ed.), *Advances in the neurolinguistics of bilingualism, Essays in honor of Michel Paradis*, Italy, Udine, 47-69.
- _____ (2005), “Spanglish: An Anglicized Spanish Dialect”,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7:1, 60-81.
- Azevedo, Milton, M.(2001), “La enseñanza del español en los programas de la Universidad de California en países hispanohablantes”, <http://cvc.cervantes.es/obref/congresos/valladolid/>
- Betanzos P., Odón(1997), “El espanglish y sus accidentes”, *Apuntes*, 5:2, <http://www.elcastellano.org/espangl.html>
- _____ (2001), “El español en Estados Unidos: problemas y logros”, II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lengua española, <http://cvc.cervantes.es/obref/congresos/valladolid/ponencias/>
- Castro R., Xosé(1996), “El espanglish en Internet y en la computación/ informática”, <http://www.elcastellano.org/span.html>.
- _____ (2001), “El ciberespanglish, el español comercial y el español neutro en la Red”, *Panacea*, 2:5, 36-41.
- _____ (2003), “Aprenda spanglish en un santiamén”, <http://www.elcastellano.org/ns/edicion/2004/julio/spanglish.html>.
- Culler, J.(1977), *Ferdinand de Saussure*, New York, Penguin.
- Davis, C. A.(2001), “La industria del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en los EE.UU.”, *Ponencias de II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lengua española*, <http://cvc.cervantes.es/obref/congresos/valladolid/>.
- Fernández-Ulloa, Teresa(2004), “Espanglish: nacimiento, crecimiento y rasgos principales”, *Interlingüística*, 15:1, 497-506.

- Franco, J. C. & Solorio, T.(2007), "Baby-Steps towards Building a Spanglish Language Model", Gelbukh, A. F.(ed.)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Intelligent Text Processing, LNCS*, 4394, 75-84.
- García Rojas, M. A. & Molesworth, D. J.(1996), *Unravelling Spanglish: A practical guide to language interference*, Tunja, Universidad Pedagógica y Tecnológica de Colombia.
- Garrido, J.(2004), "Spanglish, Spanish and English", *A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panglish*, Amherst College, <http://www.amherst.edu/~spanglish/garrido.htm>
- Gimeno, M. V.(2001), "El desplazamiento lingüístico del español por el inglés en la prensa hispana de Estados Unidos", *Ponencias de II Congreso Internacional de la lengua española*, <http://cvc.cervantes.es/obref/congresos/valladolid>
- Gómez Font, Alberto(2000), "Un nuevo lenguaje técnico: el español en la Internet", <http://www.elcastellano.org/alberto.html>.
- González-Echeverría, R.(1997), "Hablar spanglish es devaluar el español", *El Clarín*, <http://www.elcastellano.org/clarin.html>.
- Gurrea, J. A.(2003), "Ciberbarbarismos, Indiscriminada invasión de anglicismos", <http://www.etcetera.com.mx/pag26ne33.asp>.
- Haugen, E.(1950), "The analysis of linguistic borrowings", *Language*, 26, 210-231.
- Hernández-Chavez, E., Cohen, A. D. & Beltramo, A. F.(1975), *El Lenguaje de los Chicanos*, Arlington, Va,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Instituto Cervantes(1998-2005), "El español en el mundo", *Anuario del Instituto Cervantes 1998-2005*, <http://cvc.cervantes.es/obref/anuario/>
- Lagier, José(2006), "El poder de la nueva mayoría", *Cambio*16, No 1,825, 34-37.
- Lázaro Carreter, F.(1990), *Diccionario de Términos Filológico*, Madrid, Gredos.
- Lipski, J.(1985), "The construction Pa(ra) Atrás among Spanish-English bilinguals: Parallel structures and universal patterns", *Revista Interamericana*, 15, 91-102.
- _____(2005), "La lengua española en los Estados Unidos: avanza a la vez que retrocede", *Revista Española de Lingüística*, 33:2, 231-260.
- _____(forthcoming), "Spanish, English or Spanglish?: Truth and consequence or U. S. Latino Bilingualism", *Hispanic Issues*, 197-218.
- Marcos-Marín, F. A.(2000), "El español en relación con la comunicación técnica y científica", <http://www.imim.es/quark/19/019066.htm>.
- Molinero, Leticia(1995), "Spanglish", *Apuntes*, 3:1, <http://www.elcastellano.org/spangli.html>.

- _____(1998), "La incidencia del Espanglish, ¿evolución o subordinación", *Apuntes*, 6:1, <http://www.elcastellano.org/incid.html>.
- Otheguy, Ricardo(1993), "A reconsideration of the notion of loan translation", in Roca, A & Lipski, J. (eds.), *Spanish in the United States: Linguistic Contact and diversity*, Berlin, Mouton de Gruyter, 21-45.
- Pantaleoni, A. & Martín, J.(2001), "Internet, la nueva economía y el móvil conmueven el español", *Ciberpaís*, <http://www.cuadernos cervantes.com/prensa0025.html>.
- Yolanda, Rivas(1998), "Surfea en el cyberspanglish", <http://www.elmundo.es/navegante/98/junio/19/cyberspanglish.html>
- Silva-Corvalán(2001), *Sociolingüística y Pragmática del Español*,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Stavans, Ilan(2003), *Spanglish: The making of a new American language*, New York, HarperCollins.
- Valenzuela, Javier(1997), "El vigor del 'spanglish'. El cóctel de español e inglés invade las calles de Nueva York por boca de su población hispana", *El País*, <http://www.elcastellano.org/elpais.html>.
- Weinreich, Uriel(1974), *Languages in contact: Findings and Problems*, The Hague, Mouton.
- Zurita, P. L.(2005), "Economic anglicisms: adaptation to the Spanish linguistic system", *Ibérica*, 10, 91-114.
<http://www.internetworldstats.com/stats7.htm>.

이름: 유은정

주소: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19-295

E-mail: patricia5@hanmail.net

논문접수일: 2007년 10월 8일

심사완료일: 2007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 2007년 12월 10일